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한 비구니스님의 소신공양

며칠전 무량광이란 법명을 가진 한 보살님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다. 우연히 월악산 영봉이 보이는 충북 제천 한수면 송계리의 한옥에서 며칠 머물다가 한 비구니스님의 소신공양(燒身供養: 몸을 스스로 불살라 부처님께 공양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 한옥 주인은 우암 송시열 선생의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 선생을 11대 조로 모신 한학자 권성중(79) 옹.

권 옹에게 전화를 걸어 사연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작은 키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한 비구니스님이 3년전 마을로 들어와 허름한 집을 사서 작은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스님은 아마도 암에 걸렸던 것 같은데, 마을에서 품앗이를 하며 동네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밤새 '관세음보살'을 염(念)하며 정진하던 스님은 1년간 살다가 점촌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 마당에 장작을 쌓아 놓고 소신공양을 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지요."

권 옹 부부는 이 스님을 만나 비로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돼 등산하러온 스님과 불자들을 재워주곤 했다. 하지만 그 스님의 성(姓)이 '전주 이'씨라는 것과 통도사와 인연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법명 등 자세한 이력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생을 불꽃처럼 살다간 스님의 구도역정을 생각하니, 근대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1849~1912) 스님과 태고종 승정 총담(1913~1998) 스님의 삶이 떠올랐다.

깨달음을 얻은 후 치열한 만행으로 오후수행(悟後修行)을 전개한 경허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수좌들을 지도했지만, 말년에는 불교라는 틀마저 초월해 함경도의 한 시골에서 훈장 노릇을 하며 입전수수(入廛垂手: 세속에 들어가 자비의 손을 드리움)의 길을 실천했다.

총담 스님은 '분단조국 통일' '생로병사 중생제도' '불교계 화합흥륭'이란 세 가지 대원력을 세우고 1998년 가평 감로사 미륵부처님 전에서 소신공양을 결행, 당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두 고승의 삶은 세간속에서 중생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보살의 대원력으로 회향한 공통점이 있다. 무명의 비구니스님 역시, 육신의 고달픔을 잊고 농부들과 어울려 그들을 교화하며 다음 생에 보살로 태어나[願力所生]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비원력으로 소신공양을 단행했을 것이다. 고인의 큰 서원이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게 되기를 발원한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충청 사찰음식 '단순·담백'

조계종 문화부·사찰음식조사단 사찰음식DB화 실태조사

충청지역 음식은 단순 · 담백하고 이 지역 사찰에서는 된장 쌈장 청국장 등 콩을 이용한 음식 등을 주식으로 한다는 간이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계종 문화부는 8월 3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충청지역 사찰음식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행사는 조계종 문화부와 사찰음식조사단(단장 수경 · 조계종 문화부장)이 전국 사찰음식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위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사찰음식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현황을 분석하고 사찰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을 발굴 · 기록하는 사업이다.

5년간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1차년도인 올해에는 충청남 · 북도에 위치한 400여개(조계종, 태고종 등) 사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1차 전화인터뷰 결과, 충청도지역 사찰에서는 된장, 쩜장(쌈장), 청국장, 콩죽처럼 콩을 이용한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먹고, 지역 특산물인 인삼을 이용한 인삼전과, 인삼튀김, 인삼전을 비롯해 질경이 장아찌, 노각 된장찌개 등이 널리 퍼져있었다.

또, 죽염을 직접 제조해서 사용하고 구절초나 뽕잎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했다.

수경 스님은 "사찰 음식은 구전으로 전래되어 온 까닭에 기록화 된 자료가 빈약한 실정"이라며 "식재료의 서구화와 공양주 보살의 부족, 사찰음식에 대한 교육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사찰음식이 사라져 가고 있어 사찰음식 데이터베이스화(문서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혜철 충청지사장

"중앙종회는 승풍 실추 엄정조사하라"

교단자정센터, 초심호계원장 불신임 결의 촉구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에 초심호계원장 불신임 결의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단자정센터는 8월 5일 조계종 중앙종회에 제출한 '초심호계원장 불신임 결의 요청서'에서 8월 10일 제18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초심호계원장 종열 스님을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불신임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요청서에서 "초심호계원장 종열 스님은 2007년 10월부터 호계원장직을 맡으며 역대 초심 호계원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깃털같은 솜방망이 처벌' '고무줄 형량' '유(전)권무죄 · 무(전)권유죄'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한 장본인으로 종단의 승풍 확립을 저해하고 위계를 실추시킨 책임의 중심에 있다"며 "하등의 참회도 없었던 만큼 중앙종회는 종열 스님의 직무유기와 명섭 스님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는 "호계원에 대한 제보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며, 6일 개최 예정됐던 조계종 사법제도개선토론회를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조동섭 기자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 지름길

환경위 반대성명,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사업"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는 8월 6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환경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사상 최대 예산인 22조가 소요되는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강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와 국민들은 사후 일어날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치 않은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위는 이어 "지금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자연공원 내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 지리산 댐 건설 등 국토 전체가 온갖 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상식과 법적 절차 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이러한 개발시도는 국토를 재앙과 환경의 파괴로 몰고 갈 것"이라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위는 △정부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국민합의 우선 △4대강 개발사업 철회 △전국 각 명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자연공원법 개악 반대 △지리산 댐 건설 즉각 중단 등을 주장했다. 환경위는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관련 단체 및 불교계 사찰들과 함께 연대해 저지에 나설 것도 밝혔다.

노덕현 기자

10 · 27법난 교육관 범어사 건립 요청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과 허남식 부산시장은 8월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범어사 지역 내 10 · 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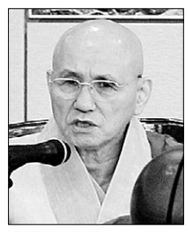
이날 예방에서 정여 스님은 "범어사에 10 · 27법난 역사교육관을 건립하면 불교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의했다.

심의위는 예산확정을 기해 전문가 용역과 종단 중지를 모아 건립 적합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매도된 불교가치 환산 안돼"

월주 스님 '10 · 27법난…심의위' 간담회서 강조



월주 스님.

"1500억 원 보상하려면 작은 돈, 안하려면 큰 돈,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한 불교 가치 헤아릴 수 없어."

8월 7일 월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4층 대회의장에서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심의위)가 개최한 '월주 스님 초청 간담회'에서 당시 불교계의 피해를 강조했다.

월주 스님은 전두환 정권 시절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10 · 27 법난을 겪었다. 월주 스님은 당시 군사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1980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23일간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총무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월주 스님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시 법난으로 불교신도가 수백만이 떠났다. 종단이 현재 요청한 1500억은 정부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작은 돈, 하지 않으려면 큰 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단이 우선 부지 및 세부예산 계획을 확정하면 보다 원활히 추진 가능하다'(정치계), '1500억 예산은 국방부 차원에서는 힘들어, 청와대와 정책적 빅딜을 해야한다'(군관계), '보상 예산 설정에 통계자료 등 보다 치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법조계), '사료 및 홍보를 위한 세미나 등을 열어야 한다'(교계)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

한편, 간담회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을 비롯해 삼보 스님(심의위 전문위원)과 최병국 국회의원(한나라당),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이상 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한철 결제 마치니 부단히 정진하라"

하안거 해제법회 5일 전국 사찰서 일제 봉행

문경 대승사에서 하안거를 마친 수좌스님들이 만행을 나서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기축년 하안거 해제법회가 8월 5일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안거 기간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용맹정진하던 수좌들은 바랑을 짊어지고 만행을 떠났다.

이날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해제법어를 통해 "수행자가 한철의 결제를 마치고 해제를 당해 스스로를 점검함에 있어서 어떠한 소득이 있었는가 하는 기준은 열반지(涅槃地)에 얼마나 다가갔는가 하는 것"이라며 "정진대중과 외호대중, 시주단월 모두 삼라만상이 결제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었으니 만행을 떠나는 납자가 이르는 곳이 열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도 해제법어에서 "세상을 움켜잡아 털끝만큼도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니 천하 사람들이 입을 꽉 다물어 버렸다. 이것이 진실로 수행자의 올바른 법령(法令)이며, 사람들의 말을 제압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삼천리까지 달아나게 하는 것은 수행자의 기백"이라며 안거와 해제 구분 없이 수행자들이 부단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 등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전수교육 수료자 체험사례

신문 광고를 보고 이것은 가짜 아니면 진짜일수가 있다고 생각했다.20년 한의사 생활에 비추어 보아 내가 저런 자신만만한 광고를 일간지에 낼수 있는 치료에 자부심을 가진 실력이 있는지 반문해보니 자신이 없었다. 그냥 광고를 보고 넘겼으나, 다음날 아침, 기수련중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신문을 찾아 강화도에 6일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바쁜시간을 쪼개서) 정골 정체 시간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가 도출되는 나 자신도 놀라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이 교육은 나의 의학적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고, 인체를 다루는 모든분들이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 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장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의사 송OO (2기 수료)

국민일보 5월 14일 자 13면 하단에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최고수 활인비법전수 안내라는 광고문을 보았다. 그동안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의 질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경침과 봉침에 대하여 교육도 받았고 관심이 많은 터라 자세히 광고문을 읽는 중에 정골정체, 정형청혈, 통경활락이라는 삼정요법과 비법전수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5박6일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나서 보니 여기와보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뻔 했다. 침술비법은 물론 교정법, 정혈등 임상실험과 함께 이명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듣게 되고 20년동안 다리가 저려서 유명한 병, 한의원을 다 다녀보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던 환자가 2회의 시술로 뛰는 것을 보게 되고, 후두통이 즉시 사라지고 요통으로 고생하던 교육생이 완치가 되는 등.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놀랍고 대단한 세계 최강, 최고수임을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의학의 도인이고 인술의 대가이시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또 와야겠다.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목사 김OO (3기 수료)

오늘이 재교육의 마지막 날이다. 처음 교육때는 배워서 남을 치료한다가는 생각보다는 나의 지병부터 고쳐보고자 생각하고 왔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옹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몸을 관리하면서, 옆에 아픈 분들과 관리를 하면서 그 즉시 각종 통증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에 수없이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낳지 않았는데 단 몇 분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통증이 싹 가시고 낳은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십수년 동안 아파왔던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졌다. 또한 위장병과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뀌었다. 이 좋은 치료방법을 배워서 남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모독이며 선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따르지 아니 함이니 부족하나마 열심히 배워 활인비법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몇 번 망설인 끝에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하며 왔는데, 지금의 생각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과정이 몸에 익어 가는 것 같다. 침 몇 개로 오십견과 허리통증을 낳게 하고 정골정체 비법으로 몇 분만에 몇 십년 앓아오던 관절과 발 저림을 낳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런 좋은 활인법을 가르쳐주신 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에 같이 참석하여 서로 도와주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승려OO (3기 수료)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正骨整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活人氣功)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萬病之根源 氣滯血瘀, 세계최강 山蔘면역침술

▶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 교육기간 : 8월 14일 ~ 8월 16일 2박 3일
8월 21일 ~ 8월 23일 2박 3일
▶ 교육안내 : 032)937-7356, 7182
010)6299-8386
▶ 주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타 (피부,비만,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弟者구함 : 자연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 주경야독하면서 醫通君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함.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백내장, 치주염,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 ~ 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 ~ 10회의 시술로 90%이상 치유됩니다.

외과적영역 수술날짜 받은 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초기강직성척추염, 안면마비, 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항강통, 어깨결림, 오십견,테니스.골프엘보우, 수족마비,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 퇴행성무릎관절염, 악성무좀,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생리통, 채머리증, 수전증, 족저통,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 ~ 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90%이상 사라집니다.

●교육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분(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 한의사, 중의사, 물리치료사, 스님, 목회자님, 태권도, 합기도 관장, 수련원, 단식원 운영자 및 대체의학 및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